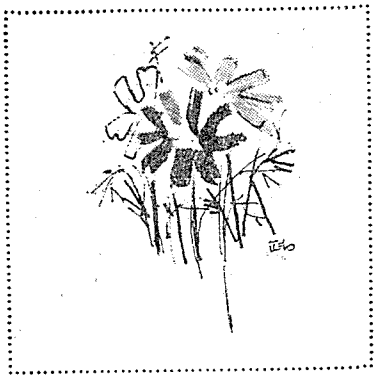


# 암이 되는 식품을 찾아라

李 章 圭



암의 원인은 아직 불명(不明)이란 두 글짜로 끝난다. 따라서 암과 식품과의 관계도 이른바 미지(未知)의 영역이라 할 수 밖에 없다. 하지만 아주 백지라는 뜻은 아니다.

지구 전역에 걸쳐, 지역에 따라 또는 인종에 따라 암의 종류가 다르고 또 같은 암이라도 그 발생율이 다르다는 사실로 보아 혹 암은 음식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은 논리상 타당한 것이었다.

「위암왕국」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인 중 미국에 이민 간 후손이 3대쯤

으로 내려가면 그들 위암 발생율이 미국인의 그것과 같아진다는 사실에서, 한 때 위암은 쌀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적이 있었다. 그러나 위암이 많기로 알려진 아이슬랜드나 핀란드, 칠레 등 나라에서는 쌀을 상식(常食)하지 않는다. 그래서 쌀은 일단 위암의 용의자(容疑者)라는 누명을 벗겼다.

최근, 자연식품에서 발암물질(發癌物質)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.

그러나 그보다도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식품의 가공 또는 저장을 위한 처리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물질이다. 식품에 따라서는 농약을 포함해서 700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이 소요되는 것들도 있다고 한다.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(발암성인 것 포함!)만 100종을 넘고 우리 나라에서만도 산야(山野)에 뿌려지는 농약은 자그만치 연간 4천만킬로그램에 달한다는 이야기다.

「싸이클라메이드」——식품의 마술사——가 얼마전 포승을 찼다. 1950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갖가지 식품에 첨가된 이 달콤한 물질이 발암성을 지

된장, 고추장, 막걸리 등 우리나라 식품 288개 상대로 수색작전 폈으나

였다는 사실이 탄로난 것이다.

싸이클라메이트는 10억불에 달하는 기업을 이룩했고, 심지어는 약용시럽에 까지 기여 들었다.

화학물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곰팡이 독(毒)이다. 그 대표가 「아플라톡신」.

아플라톡신은 1960년, 영국시민들의 크리스마스 식탁을 쓸쓸하게 만들었다. 이 곰팡이 독은 사료로 사들인 땅콩에 묻어 들어와 수만마리에 달하는 칠면조를 일시에 몰살시키고 만 것이다. 간암이 그 원인이었다. 아프리카 일부 주민들에게 간암이 많은 것은 그들이 주식(主食)으로 하는 땅콩이 아플라톡신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.

우리 나라 식품에는 이른바 발효식품 즉 썩혀서 먹는 것들이 많다. 된장, 간장, 고추장, 김장. 수년전, 한 미국인의사는 메주 속에서 아플라톡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. 덧붙여 한국인에 위암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라는 것.

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메주를 위시한 우리의 식품, 쌀, 밀, 팥, 땅콩, 된장, 고추장, 막걸리 등 288점의 식품을 조사, 아플라톡신 수색작전을 벌였다. 3년에 걸친 대학교수들의 원호사격까지 받은 이 작전에서 우리는 용의자를 잡긴 했지만 진범(眞犯)을 잡아내지 못했다.

하지만, 우리 나라의 기후가 고온다습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곰팡이 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. 결코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.

한 때 미국에는 직장암이 많았다.



냉장고가 생기면서부터 직장암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.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발효식품은 여러가지 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.

육식을 하는 민족에게 위암이 적은 것은 육류가 위액분비를 증진시키고 그 결과 희석된 위액이 음식에. 묻어 들어온 발암물질을 빨리 내보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. 그러나 또 구운생선이나 불고기가 위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.

홍차를 동물에게 주사해서 암을 만드는 데 성공한 학자도 있다.

결국, 무얼 먹고 살라는 말인가?

당분간 — 암과 식품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날까지 — 밭 도리 없다.

그저 분수에 맞게 먹고픈 것,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.

<필자=原子力委員·醫博>

● 기생충박멸표어

- 새마을 건설은 기생충 구제부터
- 너도 나도 다같이 기생충 검사 받자
- 기생충 구제는 온 가족 다 함께